

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

1

연간보고서

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16년간 공감은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흡리스, 성소수자,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2019 연간보고서

04
인사말

공감 |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인권 |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법 |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05
여는 글

06
공감마당

06
인권법캠프

08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10
자원활동

12
청소년 인권 강좌

14
사진으로 보는 공감



18
공감활동

20
여성인권

24
장애인권

28
이주/난민

32
빈곤/복지

35
국제인권

41
성소수자

45
취약노동

50
공익법 일반

56
공익법 교육/중개

60
공감이 걸어온 길

62
공감살림살이

64
함께하는 사람들

64
기부회원

68
이사회

70
구성원

72
공감나눔방송

늘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습니다.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지난 해 ‘공감’이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신 기부회원님께 감사드리는 조촐한 행사도 가졌고 그 행사에서 오히려 감사를 받기도 하여 ‘공감’이 앞으로 다시 15년을 버틸 큰 힘을 받았습니다.

‘에펠탑도 보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가난과 고통이야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스치면 남의 일이지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내가 도울 일, 곧 나의 일이 됩니다. 세계 도처에는 가난과 고통, 인간의 존엄을 다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가난한 이, 더 고통 받는 이에게 해줄 일이 넘쳐납니다. 공감하는 능력은 가난한 이의 말을 듣는 능력,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그런 공감 능력이 남다른 변호사와 활동가가 모인 단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가난한 변호사 단체입니다. 강요된 가난이 아닌 스스로 각오하고 선택한 가난이어서 그리 고통스럽거나 슬프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후원이 없으면 존립하거나 활동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나름의 어렵고 쉽지 않은 사연을 감추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선뜻 후원해주는 기부회원 여러분이야말로, 공감 능력이 남다른 분입니다. 그 저 늘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맙습니다.

2020년에도 ‘공감’은 여러분의 귀한 뜻이 헛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꿋꿋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기부회원님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의 활동이 기부회원님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속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총장

‘공감 연간보고서’를 준비하는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상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위기를 겪는 시기는 역설적으로,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질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의 접근, 집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건강과 안전, 불안정하거나 영세한 노동자의 생존, 가짜 뉴스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과의 싸움까지, 바야흐로 ‘감염병의 시대’에 인권의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대두됩니다.

공감은 언제라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소송만 보더라도, 2019년 공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정보원 여성노동자의 근무상한연령 차별을 이유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청구 대법원 파기환송(승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승소,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HIV/AIDS 검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승소, 33년간 정신병원 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공익변호사단체,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공익소송을 비롯한 2019년 공감의 한 해 활동을 이 책자에 담고자 했습니다. 간추려 쓰느라 연간보고서에 담지 못한 성과를 포함하여 공감의 모든 활동이 기부회원님의 크고 작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속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계속해서 공감 활동을 지켜보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은 매년 여름과 겨울,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법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과 7월에 각 60명씩 참석하여 함께 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감 인권법캠프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법 캠프

공감
마당
소통과
참여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은 다양한 인연으로 공감과 함께하는 이들과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성폭력 사건 진실 찾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열 가지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19.3.27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와 사법농단
이탄희 전 판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19.5.21

공익인권 활동의 사회적 조건
장여경 상임이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2019.9.26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와의 만남
김지혜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 2019.11.7.



공감
마당
소통과
참여



자원 활동

공감은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법률 문헌리서치 분야로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공감의 활동을 채워줍니다.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들이 나눠준 땀과 열정으로 공감은 더 힘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강유진 김지광 김혜리 김희정 류아정
문옥훈 신소정 윤성민 장승희

공감 29기 자원활동가



공감 30기 자원활동가

김려원 김여진 김 환 박소현 박유경
송채원 신유준 안하경 양지연 이은혜



공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공익변호사가 장래 희망이라면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순수한 열정은 공감 변호사들을 긴장시키고 자극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습니다. 미래의 공익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공감에게도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청소년 인권 강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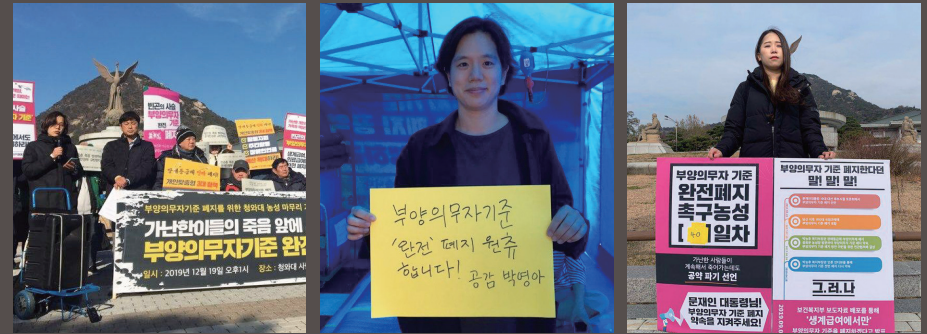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성소

2
사진으로 보는 공감
1
9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법률지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농성

동성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 진정



지하철 단차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군대 내 채색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장애계 3대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라오스댐 붕괴 사고 1년 기자회견



국제인권센터_2019 광주아시아 포럼 참석



공감 15주년 기념 후원행사 '열다섯 공감 꿈틀'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인권침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5주년 기념 후원행사 열다섯 공감, 꿈틀
 2019. 4. 25. 19:00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성소수자

취약노동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중개

2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1

9

공감
활동



여성 인권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사이버 공간 성착취 범죄 대응 - 피해자 법률지원 및 제도 개선 활동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한 회사, 5년 7개월 만에 유죄 판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7.~2019.

형법 제269조 제1항 등(낙태죄) 위헌소원 사건 공동대리인단

2018. 5. 24.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19. 4. 1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2019. 5. 16.

정의당 주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의미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전문가 초청 공개 토론회(토론)

2019. 5. 22.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토론)

2019. 6. 8.

한국인권학회·한국인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본 성과 재생산의 권리' 세션 패널 토론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2019년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이후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과제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국회에서도 여성의 임신중결에 관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사이버 공간 성착취 범죄 대응

- 피해자 법률지원 및 제도 개선 활동

2019. 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불법촬영·비동의유포 피해자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방안 등 법제 연구)

2019. 10.

비공개촬영회 피해촬영물 비동의유포 피해자 A 고소 대리

2019. 10.

민변 '아동성착취 영상 대응 TF' 활동
「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발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 양형기준 마련 위한 판례분석

2019. 12.

비공개촬영회 피해촬영물 비동의유포 피해자 B 고소대리

불법촬영과 피해촬영물 유통 행위가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노력해왔습니다. 불법촬영 뿐 아니라 촬영에 동의했다라도 촬영물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함부로 이를 유통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각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감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에 참여해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촬영물이 유출돼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해 사건지원을 하였습니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법제 연구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다크웹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가 한국인 손씨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가 국내 사법부에서 받은 형량이 겨우 1년 내외였다는 점 때문에 공분을 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감은 사건 발생 직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및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아동성착취 영상 대응 TF' 팀을 결성, 토론회 참여 등 단체들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고, 후속 활동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 양형기준 마련 위한 판례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한 회사, 5년 7개월 만에 유죄 판결

2014. 6.

피해자의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위반 고소 대리(공동대리인단)

2015. 1.

피해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대리

2017. 12.

피해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판결 선고

2018. 1.

피해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 대리

2018. 7.

회사의 재상고 기각(피해자 승소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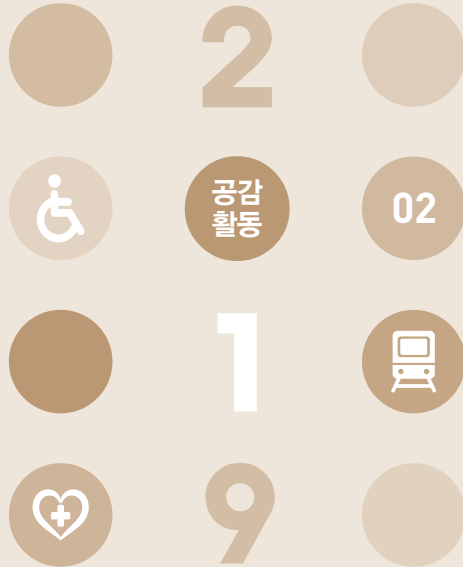
2018. 3.-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사건 기소, 제1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대리

2020. 1.

1심 유죄 판결 선고(회사 벌금 2천만 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 고소 후 5년 7개월 만에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대해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최고형인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당사자에게 부당한 견책 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업무장소 제한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인사팀 부장, 부당한 견책 징계를 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불리한 업무배치를 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감은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의 대표 사례로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으로 2014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년간 계속된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형사 1심 재판절차에서 법무법인 여는 소속 변호사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장애 인권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일부승소
지하철 단차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제기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일부승소

2015. 3.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15. 5.
조정회부, 불성립

2016. 6.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 선고기일 변경 반복

2018. 5.
성년후견절차 진행

2019. 11.
일부승소 판결 선고

스물 두 살이던 H씨는 1980년 직장을 구하겠다고 서울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1982년 6월 부산역에서 H씨를 발견한 경찰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가족 관계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H씨를 정신병원에 수용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지문 조회를 통해 H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33년 만에 H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에 관해, 장애로 자신의 거처를 말할 수 없는 경우 무작정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행위는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6개월마다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는 이상, 설령 지문 조회를 했더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고 소홀해 H씨가 가족을 찾을 수 없었던 긴 세월에 대하여 배상책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길었던 소송 끝에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82년 수용당시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신원 조회를 규정한 법률도 없다는 점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줄어든 이유였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승소판결을 통해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민이 처한 개별 상황에 맞게 보다 세심하고 정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단차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제기

2019. 4.
원고1.의 지하철 사고

2019. 7.
지하철 단차에 의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및 기자회견

2019. 10.
제1회 변론기일

2020. 1.
국정감사자료 구성명, 당사자본인신문 및 현장검증 신청

2020. 2.
지하철 현장 영상촬영

2019년 7월, 공감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에 안전발판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라는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때때로 장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 간격이 너무 넓거나 계단처럼 높아서 전동 휠체어 바퀴 등이 그 틈에 빠지고 높은 단차에 걸려 넘어가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시철도법은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 간격이 10cm를 초과할 경우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방치된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계속 다쳤습니다. 형식적인 이동식 발판 서비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감은 지하철이 진정한 '대중'교통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2019. 7.~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조례제정 회의

2019. 7.~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조직위원회 활동

2019. 10.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공동개최 및 참여

2019. 10.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19. 12.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의회 통과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어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합니다.

2019년 10월 26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제1회 '매드 프라이드(Mad Pride)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행진하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We are here, now)'라는 행사 슬로건을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자,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인 이들의 힘찬 응원에 공감도 조직위원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정책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서울시 의회의 이정인 의원실과 함께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주 난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사업 참여

본국의 독재정권 맞서 싸운 A씨, 한국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난민 인정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사업 참여

2019. 3.

연구구역 착수

2019. 3.-8.

문헌조사, 이주민과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2019. 8. 16.

중간보고

2019. 9. 23.

전문가 자문회의

2019. 10.

최종보고서 제출

‘인종’(44.7%), ‘민족’(47.7%), ‘피부색’(24.3%), ‘출신국가’(56.8%), ‘한국인이 아니어서’(59.7%), ‘종교’(18.6%), ‘의식주 등 문화적 차이’(45.4%), ‘한국어 능력’(62.3%), ‘말투(악센트)’(56.6%), ‘성별’(19.0%), ‘직업’(35.6%), ‘경제적 수준’(36.9%).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공감의 구성원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위 사유별로 ‘가끔’, ‘자주’ 또는 ‘항상’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연구결과 혐오표현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구제를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고용과 주거, 그리고 물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직접적, 간접적 인종차별은 반드시 규제와 구제가 필요함에도 법적 공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행위 유형은 ‘언어적 비하’(56.1%),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어본다’(46.9%), ‘사람들이 내 존재를 없는 사람 취급하였다’(34.9%) 등 단순히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이상으로, ‘임장을 거부당하거나 이용을 거절당해 쫓겨났다’(19.1%), ‘일부 항목에 대해 판매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20.7%), ‘채용을 거부당했다’(28.9%), ‘일터에서 승진, 작업 배치, 임금, 보너스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았다’(37.4%) 등 차별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이 고착화되면 차별받는 집단의 계층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차별행위를 일부 양식이 없는 이들의 무례한 행동 정도로 가벼이 여길 수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본국의 독재정권 맞서 싸운 A씨, 한국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난민 인정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2014.

A씨와 가족의 난민재신청 및 체류자격 신청 지원

2016.

이의신청

2016~20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2018.

A씨와 가족의 난민재신청 지원

2019. 2.

난민인정

A씨는 음악가입니다. A씨의 출신국은 독재와 내전으로 오랜 기간 신음해온 나라입니다. 2005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집권층을 비판하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위협을 느낀 A씨와 가족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여정은 험하고도 길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겪은 일을 설명할 때마다 A씨는 불신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A씨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자국 정부에 대항하는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A씨와 그의 가족은 드디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14년, 공감과 만난 지 거의 5년만입니다. A씨처럼 한국에서 비호를 신청하는 난민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2019. 5.-10.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2019. 6.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의 면담조사

2019. 7.-8.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사례 기초조사연구

2019. 9.-10.

외국법제 심화 연구

2019. 10.

평가회의 및 유관기관, 단체 종사자 간담회

공감은 다년간 함께 활동해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임 구성단체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 깊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25명, 이들의 부모 17명,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종사자 11명을 직접 면담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체류현황과 인권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국내외 법제도 연구 등을 병행하여 이들의 체류권 보장 및 정규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의 면담조사를 수행하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와 협력하여 해외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빈곤 복지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승소
 홈리스행동 인권지킴이 활동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승소

2014. 10.

최인기님 사건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2017. 8.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제기

2019. 12.

조건부 수급자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승소

최인기님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달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를 말합니다. 최인기님은 심장혈관 질환 때문에 2차례 큰 수술을 받고 2006년부터 근로능력 없는 ‘일반 수급자’로서 수급을 받아왔으나, 근로능력 판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된 2013년, 갑자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최인기님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미화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불과 3개월 만에 일하다가 쓰러져 이식 받은 혈관의 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가의 무리한 ‘자활’ 조건에 최인기님이 사망한 것입니다. 공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최인기님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2019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가 위법하고 과실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의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하여 이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인기님의 근로능력 판정절차에서 이런 집요함의 반만 보여줬어도 최인기님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감은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홈리스행동 인권지킴이 활동

2019. 5.~
매주 금요일 서울역 홈리스 인권지킴이 활동

2019. 7.~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국내외 홈리스 관련 정책 연구모임

2019. 12.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공감은 홈리스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고정적으로 노숙지역에 찾아가 거리홈리스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을 통해 홈리스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조력하는 현장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인 '노숙인'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시설 중심의 지원과 지원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등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숙인복지법의 전면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국제 인권

인권과 공감의 새로운 지평, 국제인권센터의 출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획활동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HIV/AIDS 검사에 문제제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인권과 공감의 새로운 지평, 국제인권센터의 출발

2019. 2.
제1회 로아시아(LAWASIA) 인권회의의 난민의 권리 발표

2019. 3.
세계법률운동 네트워크 (GMLC) 워크샵 참가 (모로코)

2019. 4.
국제 인권 역량강화 & 연대 워크샵 참가 (미국)

2019. 5.
유엔인권이사회(ECOSOC) NGO 협의지위 신청

2019. 5.
OMCT : 고문방지 소송 지역그룹 워크샵 참가 (필리핀)

2019. 5.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광주아시아포럼 초청, 회의

2019. 6.
ESCR-Net : 전략소송 워크샵 참가 (몽골)

2019. 9.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 IBA) 서울 총회 난민비자, 공급망, 혐오표현, 법의 지배-법률가의 독립 세션, 세계공익변호사의 밤 발표

2019. 10.
몽골변호사협회(Mongolian Bar Association : MBA) 프로보노 회의
“한국의 사법접근권과 프로보노” 발표 (몽골)

공감은 2019년 4월 25일, 공감 국제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구성원 4명, 자문위원 6명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국내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 국제인권기구의 활용, 아시아 혹은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한 초국경적 협력 활동 등 기존의 공감 활동을 종합하고 한 단계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ECOSOC) NGO 협의 지위를 신청했고, 2019년에는 특히 기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인, 강화하고 그 내실화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법률가단체인 로아시아(LAWASIA) 인도 인권회의에서 난민의 권리를 발표하고, 전 세계적 대표 법률가단체인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총회에서는 난민비자, 공급망, 혐오표현, 법의 지배-법률가의 독립 세션 당 총 5개 세션에서 발표하고 세계공익변호사의 밤을 공동기획하기도 했습니다. Namati, PILnet, BABSEA-CLE, TrustLaw 등 다양한 국제공익법률단체들과 교류하면서, 미국 인권연대 국제워크샵, 모로코 법률운동 워크샵, 필리핀 OMCT 고문방지 소송 지역그룹 워크샵, 몽골 ESCR-Net 전략소송 워크샵 등을 참가하며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모색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온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는 광주아시아포럼에 초청해 활동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고, 몽골변호사협회(Mongolian Bar Association: MBA)가 주최한 프로보노 회의에서 “한국의 사법접근권과 프로보노”를 발표하는 등 한국의 공익법운동 경험을 널리 알리는 활동도 지속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획활동

2019. 1.

인권법학회 주최 국제인권법 국내이행 라운드테이블 사회

2019. 2.

변협-고균 공동주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동방안 심포지엄
- 자유권위원회 보고전 질의목록 작성과정에서의 참여전략 논의 발표 (02)

2019. 8. & 12.

국가인권위, 인권법학회 등 주최 국제인권기준 국내 법원 적용을 위한 토론회 등
공동기획, 준비, 토론, 사회

2019. 10.

변협 국제인권특별위 유엔자의적구금위킹그룹 전 의장 초청 특강

2019. 11.

서울대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대법원장에게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제언 제출

2019. 11.

서울대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행정절차법 개정법률안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행정구급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박주민 의원실 제출

공감은 그 출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루어져왔던 논의를 종합하고 구체적인 정책 및 실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주도하는 국제인권기준 국내 법원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 기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내용을 내실화를 기했고, 인권법학회가 주도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 학술회의에서는 기존의 논의가 종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공감의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법전문 국제인권클리닉을 통해서도 학생들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을 촉구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HIV/AIDS 검사에 문제제기

2018. 6.

소장 접수

2019. 4.

변론 기일

2019. 8.

변론 종결

2019. 10.

판결 선고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 습니다.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에 그는 HIV 검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교육청은 그에게 계약 갱신 거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의 인권침해진정을 각하했고 중 재재판소는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엔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 제협약(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혹은 개인통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인종차 별철폐위원회는 2015. 5. 1. (해당 정책이)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 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A씨가 입은 실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감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쟁점 중 특히 “소멸시효”가 문제였는데 법원은, 당시 국내법상 HIV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A씨에 게 HIV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국 가의 행위는 “보호의무를 저버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 원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를 공개한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씨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아 A씨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2018. 7. 24.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발생

2018. 7. 3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시민사회 대응TF 발족 결의

2018. 8. 27.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2019. 1. 22.
한국 시민사회 TF,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2019. 3. 11.
한국서부발전, SK건설에 2차 질의

2019. 6. 17.
OECD 한국 국가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제출

2019. 7. 23.
'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댐 사고 1주기, SK건설과 한국 정부 책임추구 기자회견

2018년 7월 24일, 우리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SK 건설이 시공하던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댐 보조댐의 붕괴로 수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수천 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참담한 비극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발생 1주일 만에 한국 시민사회 TF가 꾸려졌고, 공감은 TF의 시작부터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유엔과 OECD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내외적으로 비극의 참상을 알림으로써 책임자는 응분의 처벌을,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렸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높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OECD의 국가연락사무소에서 한국 시민사회TF가 제기한 진정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서도 라오스 사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정해져있지 않은 길이기 에 더 꾸준한 발걸음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



성소수자

동성혼·동성간 파트너십 권리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커플 차별 진정 대리
장신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혐오세력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동성혼·동성간 파트너십 권리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커플 차별 진정 대리

2019. 6.~ 7.

LGBT 당사자들 대상 동성커플 차별 사례 수집 위한 설문조사

2019. 8.

사례 분석 및 설문조사 보고회

2019. 10~11.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커플 차별 진정 준비, 진정인 모집

2019.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커플 차별 진정 및 기자회견

공감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연대 단체로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차별실태조사, 제도연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여름에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LGBT 당사자들이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동안 겪어 온 차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00명 가까운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미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구성, 주거, 의료, 사회보험 등 주요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자 진정인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056명의 참가자들이 진정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2019. 11.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동성혼·동성간 파트너십 권리에 대한 공적 인정은 성소수자 자신의 자긍심은 물론 그들이 속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해 사회의 진보적 변화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향후에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문제가 더 이상 ‘나중’이 되지 않도록 연대 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신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18. 12.

장신대 징계무효확인소송 제기

2019. 5.

장신대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

2019. 7.

장신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신학대학원생들인데, ‘성소수자 혐오의 반대의 날’인 5월 17일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감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에 대리인단 구성을 제안하여 공동으로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원고들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사건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징계처분이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목사고시에서 불합격통보를 받는 등 여전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송 과정과 이후에도 ‘모두를 위한 예배’를 개최하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연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들의 길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혐오세력의 가치분 신청 기각 결정

2019. 5.
퀴어문화축제 반대측의 집회금지 가치분 신청 접수.
공감 성소수자인권팀 변호사들 대리인으로 출석, 가치분 신청 기각 결정

2019. 5.~6.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성황리 진행

20주년을 맞이하는 퀴어문화축제(2019. 5. 31~ 6. 1.)를 일주일 남겨두고 조직위원회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몇몇 동성애혐오단체들이 축제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광장 반경 500m 안에서는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청소년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집회금지 가치분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감의 성소수자인권팀 소속 변호사들이 필요한 변론 준비를 하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 퀴어문화축제는 일상에서 차별받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라는 점, 2. 축제 참가자에 대해 복장, 나이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 취지에 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3. 아동과 청소년도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탐색할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자 청소년 모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했습니다. 축제 직전인 30일, 법원은 퀴어문화축제의 취지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신청인들의 가치분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가치분신청 기각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301)을 하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수록, 보수적인 혐오 세력의 휘방도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권리가 아닌,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상처내는 인권 침해적 차별행위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감은 동성애 혐오 발언과 집회 방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취약 노동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장애인 노동조합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 2012. 5.**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이유로 한 소 제기
- 2012. 10.**
1심 원고 패소 판결
- 2012. 10.**
항소
- 2013. 8.**
2심 항소 기각 판결
- 2013. 9.**
상고
- 2019. 9.**
대법원 파기환송

국정원에는 두 개의 정년이 있습니다. 43세과 57세. 여성들이 담당하는 전산·전화교환·안내 직렬의 정년은 43세, 남성들이 담당하는 영선·원예직렬의 정년은 57세. 의도적으로 남녀의 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간접 차별이었습니다. 공감은 정년 퇴직한 국정원 여직원들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정년의 차이는 직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니 성별과 관련이 없다거나, 이들은 계약직 공무원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둔 것이므로 정년이 차별적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상고한 지 만 6년 만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실상 여성에 대해서만 정년 차별로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여성 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는 더디게 보장됩니다. 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이 판결을 선물합니다.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2019. 9.**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1차 토론회
- 2019. 10.**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2차 토론회
- 2019. 11.**
권유하다 법률지원팀 결성
- 2020. 1.**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0. 2.**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홈페이지 개통,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시작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불안정한 임시직 일자리와 특수고용 종사자들, 기술의 발전 속에 분절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노동법의 존재 이유가 퇴색되는 공간에서 노동의 권리를 꿈꾸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쓰지 못하고 일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남들과 달리 휴일에 쉴 수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법이 보호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2020년 2월, 이들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집단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출범했습니다. 공감은 권유하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태일들과 함께, “일하는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장애인 노동조합

- 2018. 9. 서울시교육청,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2019. 3. 공감, 피고보조참가신청서 제출
- 2019. 7. 변론종결
- 2019. 8. 원고 패소 판결
- 2019. 9. 돌봄전담사 노동조합, 승소 보고 기자회견 개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라는 공적 일자리에서 말입니다. 노동자를 절감할 비용으로 사고했던 교육청의 태도. 때문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제 선생님들은 오랜 기간 임금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드리워진 차별적 처우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거를 모아 제출하는 일, 법정 밖에서도 수개월간 천막농성을 벌여야 했던 일. 어느 하나 쉽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포기하지 않는 165명 시간제 선생님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1년 8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환하게 웃음 짓던 순간, 제 옆에서 나지막이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라고 되뇌던 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이제 수백의 메아리 되어 세상에 맴돌고 있습니다.☞

- 2018. 2. 장애인의 노동 현실 및 대안 세미나(격주)
- 2019. 6. 준비위원회 발족
- 2019. 11. 장애인 노동조합 설립 총회 및 출범대회
- 2020. 1. 故 설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2017. 12. 평소 장애인의 일할 권리·의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체 취업률 60% 대비 3명 중 2명이 실업상태인 장애인 고용현황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동에 대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이구동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전국 방방곡곡 조합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감은 국내 최초 장애인 (일반)노동조합 설립에 뜻을 같이하고 규정 검토부터 총회 개최 등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2019. 12.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설요한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로 인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조합은 중증장애인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은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을 재정의 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많은 활동에 연대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공익법 일반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가습기살균제에서 헝가리유람선 참사까지, 재난 피해자와 함께하기
교도소 폭염수용에 대한 인권위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2019. 5.

공익소송 지원신청 접수

2019. 9.

군대 내 채식선택권 관련 국내외 자료 리서치

2019. 11.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군 입대를 앞둔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군 복무 경험을 들어보면, 군대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쌀밥과 반찬 한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영양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육식이 사실상 강요되는 군대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접어야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과 우울증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채식선택권은 학교나 군대 같은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식선택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건강권과 결부되어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입대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 국가도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감은 이들을 대리하여 국방부가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서 헝가리유람선 참사까지, 재난 피해자와 함께하기

2019.

사회적참사특조위 전원위, 세월호진상규명소위,
피해지원소위 & 변협 생명안전특위 활동

2019. 3. & 10.

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 피해지원 포럼
- “재난과 피해자 인권 시론” &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2019. 5. & 10.

서울대법전문 인권법 강좌 & 국제인권법공개강좌 “사회적 재난과 인권” 강의

2019. 6.~11.

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TF 피해가족들 상담, 외교부, 여행사 관계자 면담,
피해가족들과 헝가리 변호사들과의 만남 주재

2019. 8.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2019. 11.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RB인디아, 영국 RB본사 방문조사

2019. 12.

사회적참사특조위 기무사 세월호 피해가족 사찰 검찰 수사요청


2019. 12.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재난과 피해자 인권” 기고

2019.11.

416재단 재난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심포지엄
“재난현장 속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언” 발표

공감은 2018년에 이어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재난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416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의 피해자 구조와 수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기무사의 세월호 피해가족 사찰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사전, 사후 통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을 물었고, 옥시RB에 대해서는 RB인디아와 영국의 RB본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변협 생명안전특위 활동을 지속하면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직후에는 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TF에 참여하여 피해가족들 상담, 외교부, 여행사 관계자 면담, 피해가족들과 헝가리 변호사들과의 만남 주재 등 초기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협 인권보고서』에 “재난과 피해자 인권” 기고하고, 서울대법전문 국제인권법공개강좌에서 “사회적 재난과 인권”을 강의하는 등 연구와 교육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교도소 폭염수용에 대한 인권위 진정

2019. 8.

교도소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두 명의 수용자가 열사병으로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행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당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합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이동할 수도 없고, 수분, 염분의 섭취, 일상적인 행동도 규율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구속된 사람의 신체·생명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 인간다운 생활,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을 확보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도소들은 여전히 과밀수용에 여름의 폭염적인 더위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수용자들은 수인할 수 없는 고온 속에서 생활하도록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은 민변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가 혹서기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

2019. 1.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4.~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활동

2019. 10.~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2019. 11.

21대 국회 사법개혁 5대과제 각 정당 제안

2020. 1. 2.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박주민 의원실)

공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다른 변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응활동,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 등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국회에 불법적 로비를 하였으며,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하였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농단 관여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국회에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1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각 당에 사법개혁 5대 과제(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다양화,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 판결문 전면공개, 비위 판·검사 탄핵 및 징계)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중심의 수직 피라미드의 관료사법 구조를 만드는 핵심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로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공감의 이탄희 변호사가 참여하여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공익법 교육·중개

공변 자립지원사업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진행

공변 자립지원사업

2019. 1.

6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2019. 4.

6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면접 전형 및 선발

2019. 5.~

이현서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제호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자립지원

공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으로 매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익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하여 2019년에 6기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6기에 지원을 받은 이들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의 이현서 변호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의 이제호 변호사입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년에 걸쳐 인건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진행

2019. 3. 11.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라운드테이블 진행

2019. 3. 2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라운드테이블 진행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은 전업 공익변호사로 활동해 온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비법조인들이 공익변호사로서의 구체적인 활동모습과 전망을 그려보는 장입니다. 공감은 2011년 이후 매년 빠짐없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행사로 장을 더욱 넓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각 지역에 소재한 법학전문대학원들을 직접 방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의 전망을 전국적으로 넓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북과 경북 지역을 찾아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만나 즐겁고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다

태풍이 지나간 이른 아침에
길을 걸었다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왕벚나무들이
곳곳에 쓰러져 처참했다
그대로 밀둥이 부러지거나
뿌리를 하늘로 드러내고 몸부림치는
나무들의 몸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귀퉁나무는 몇 알
쥐똥만 떨어뜨리고 고요했다
심지어 길가의 풀잎도
지붕 위의 호박넝쿨도 쓰러지지 않고
햇볕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내가 굳이 풀잎같이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진 까닭을
그제서야 알고
감사하며 길을 걸었다

- 정호승

2005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장애아동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업

2007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공청회 발제 등 입법 활동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 수여 감사패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수여 감사패 수상

2009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
지역주민의 반발로 노숙인 쉼터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용산 화재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2011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애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 소송 승소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법조연론인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04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활동 시작
제1회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 시작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2006

성·인종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버마 출신 민주화 활동가의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승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제20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2008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의 항명죄에 대한 변론/무죄 선고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10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애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 소송 승소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2012

알바 청소년/요양 보호사의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입법활동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법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 활동

2013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인권 감시 실태 조사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14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기획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아산 사회복지재단 '아산상-재능나눔부분' 수상

2015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제19회 정일항-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2016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 위헌제정 신청 - 헌법불합치 결정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장애청소년 경찰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2017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승소(1심)
삼표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법제 개선

2018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친족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고소대리 사건 항소심 가해자 유죄판결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장신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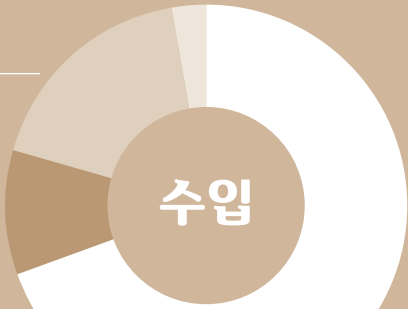
공감 살림살이

이자 및 기타
2.66%

기업 및 단체
17.74%

로펌기부
9.90%

개인기부
69.70%



수입

개인기부	779,385
로펌기부	110,710
기업 및 단체	198,397
이자 및 기타	29,766
합계	1,118,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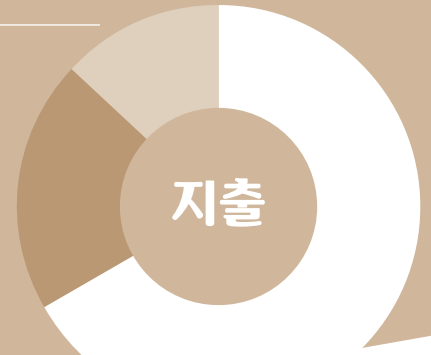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수입 항목에서 '이자 및 기타'수입은 무엇인가요?
예금이자와 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12.96%

사업비
20.22%

인건비
66.82%



지출

인건비	629,123
사업비	190,322
운영비	122,029
합계	941,474

단위 : 천원

운영비		사업비	
복리후생비	23,930	교육·중개	13,661
세금과공과	22,921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71,000
도서인쇄비	18,696	법률교육/지원	1,419
지급수수료	15,658	소송 지원	3,150
건물관리비	7,920	인권법캠프	15,277
지급임차료	3,983	포럼	1,886
사무실유지비	28,921	연구조사	24,792
소계	122,029	회원관리	14,664
	단위 : 천원	홈페이지구축	29,810
		홍보 및 기타	14,663
		소계	190,322

♥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감 변호사의 활동 = 공감의 사업'입니다. 공감은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수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을 위한 인건비는 공감 고유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기부회원

가정준	강건우	강경두	강경희	강경희	강규영	강균하	강기목	강기영	강기욱	강기탁	강기현	강동환
강두한	강문대	강미선	강민우	강민정	강방권	강상수	강서영	강서영	강선화	강성대	강성식	강성원
강성일	강세라	강세희	강수경	강수정	강순이	강승수	강승연	강신섭	강신영	강신욱	강연성	강영규
강영준	강윤희	강윤아	강윤창	강윤희	강율리	강은계	강은영	강은옥	강재상	강정숙	강정애	강정욱
강정은	강준모	강지영	강지웅	강진영	강찬	강태성	강태호	강현규	강현정	강현철	강환이	강희철
고건덕	고경관	고나무	고동선	고동희	고명균	고병원	조현지	고석필	고성민	고세훈	고솔웅	고연급
고영란	고원웅	고원형	고은아	고진욱	고진희	고찬욱	고태현	고태호	고학수	고한나	고희경	공민석
공수진	곽경란	곽경민	곽노길	곽동국	곽서윤	곽성자	곽시은	곽예람	곽우섭	곽원석	곽은비	곽인찬
곽현설	구금희	구나영	구수현	구슬기	구영운	구윤호	구인호	구자은	구지창	구현주	구혜진	권경엽
국주영은	권기섭	권기현	권기호	권대현	권영보	권미영	권배주	권보미	권순업	권영실	권영욱	권오근
권오민	권오직	권용선	권용수	권이선	권이정	권이선	권 일	권 일	권준순	권준율	권준희	권지희
권철웅	권태섭	권태윤	권태형	권혁주	권혜진	권혜은	권희진	권효신	김영은	기우용	김보수	김보수
김가연	김건호	김경래	김경림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아	김경연	김경연	김경욱	김경은
김경정	김경준	김경진	김경태	김경희	김용원	김고운	김관철	김광길	김광래	김광배	김광숙	김광영
김광욱	김교신	김구영	김군자	김권희	김권희	김규미	김규식	김기권	김기남	김기남	김기덕	김기연
김기영	김기호	김기홍	김나경	김나라	김나연	김나원	김나연	김나연	김남국	김남연	김남일	김남희
김다영	김다형	김다현	김다원	김대중	김대환	김덕여	김도연	김도원	김도진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동건	김동관	김동연	김동욱	김동욱	김동한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휘	김두식	김두현	
김라경	김락현	김래니	김려운	김룡현	김루아	김린	김명수	김명숙	김명원	김명준	김명호	김명희
김영희	김옥홍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민관
김민국	김민석	김민성	김민아	김민영	김민욱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지	김민철
김민철	김범준	김범진	김범구	김범기	김범수	김범수	김범오	김범욱	김범현	김보경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봉진	김사랑	김상률	김상미	김상민	김상용	김상은	김상일	김상준	김상준	김상현
김상현	김셋별	김서현	김석진	김석현	김선영	김선자	김선진	김선희	김성경	김성기	김성길	김성수
김성은	김성일	김성호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호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영	김세정
김세진	김세현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형	김솔아	김솔지	김수미	김수민	김수민	김수빈	김수열
김수웅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정	김순주	김순진	김순희	김순아	김순진	김순현	김순현	김순현	김사내	김시은	김시정	김시름
김아영	김애진	김양희	김여진	김연석	김연순	김연정	김연정	김연주	김영경	김영덕	김영란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옥	김영옥	김영은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후	김예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진	김옥희	김원모	김용득	김용만	김용비	김용우	김용진	김용희	김우연	김우중
김우희	김응열	김원규	김원현	김유리	김유림	김유성	김유진	김유진	김윤선	김윤정	김윤주	김윤진
김윤희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지	김은혜	김은혜	김은범	김이랑	김이슬	김인석
김인숙	김인아	김인택	김재관	김재광	김재민	김재숙	김재승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중
김재춘	김재춘	김재현	김재환	김재훈	김재훈	김정근	김정남	김정란	김정린	김정민	김정민	김정수
김정아	김정안	김정복	김정은	김정익	김정일	김정주	김정학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조현	김종록	김종민	김종호	김종서	김종순	김종일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김중희	김좌진	김주동	김주미	김주영	김주욱	김주욱	김주연	김주연	김주태	김주혜	김지건	김지건
김지선	김지양	김지영	김지완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인	김지향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	김지훈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진숙	김진아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욱	김진욱	김진우	김찬호	김창호	김창호	김창환	김창환	김채민	김채환	김철민	김철승	김준수
김충용	김충진	김태성	김태영	김태연	김태욱	김태현	김태현	김태영	김태영	김포그니	김필수	김하나
김한규	김한석	김해성	김해정	김행은	김혁이	김현경	김현경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아	김현영	김현우	김현이	김현자	김현정	김현진	김형동	김형로	김형배	김형연	김형욱
김형우	김형준	김혜란	김혜림	김혜림	김혜민	김혜선	김혜숙	김혜수	김혜영	김혜인	김혜인	김혜인
김혜정	김혜희	김호성	김호중	김호진	김호철	김홍율	김화랑	김화영	김환생	김환식	김희연	김희연
김효국	김효권	김효민	김효숙	김효준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훈식	김홍곤	김희경	김희경

김희수	김희연	김희정	나승철	나영숙	나은식	나은지	남경호	남광열	남기연	남기철	남병영	남승한
남연진	남영애	남유정	남윤미	남정원	남직수	남찬섭	노경아	노귀선	노금선	노로	노영호	노병권
노성철	노성현	노수현	노승희	노연희	노영보	노영주	노준호	노창호	노현국	노현웅	노혜련	노희선
노희정	도명준	도재형	동영철	리홍석	류경은	류다솔	류란	류영희	류인희	류신호	류신환	류연철
류영재	류원호	류윤교	류정선	류정아	류제성	류준세	류향철	류영현	류기돈	류미란	류은영	류성원
미순	맹남주	맹종진	맹한석	모광희	모영준	문경민	문경순	문규환	문기준	문미란	문은영	문성원
문연진	문영선	문영화	문유민	문윤경	문 용	문준호	문지석	문지은	문호승	문홍안	문경호	민경홍
민동섭	민선영	민세훈	민예은	민유나	민창욱	민한기	민혜정	박기현	박갑주	박경배	박경서	박경신
박경용	박경운	박경웅	박경주	박경철	박귀천	박규도	박규림	박 근	박금주	박기례	박기영	박기출
박기현	박나희	박노민	박노수	박대협	박동숙	박래군	박래형	박만선	박영호	박명희	박미현	박미희
박민욱	박서연	박병언	박병조	박병준	박병한	박보연	박봉일	박상배	박상국	박상윤	박상희	박상희
박세준	박세진	박세진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송이	박수명	박수민	박수연	박수영	박수진	박수진
박수찬	박수현	박숙경	박숙미	박순덕	박시우	박시중	박시환	박신애	박신영	박신영	박아롱	박연수
박연희	박영규	박영립	박영수	박영숙	박영희	박예안	박용대	박용식	박용찬	박우진	박원중	박윤근
박윤숙	박윤정	박윤정	박은경	박은경	박은미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은진	박은하	박은혜
박정수	박이정	박이희	박이희	박재성	박재홍	박재우	박재홍	박재홍	박재홍	박재홍	박재홍	박재홍
박정원	박정은	박정임	박정현	박정현	박종국	박종록	박종문	박종욱	박종혁	박종환	박주민	박주연
박주희	박준기	박준석	박종원	박지선	박지영	박지영	박지현	박지혜	박지호	박지환	박지환	박지훈
박진	박진동	박진석	박진우	박진호	박진호	박진호	박찬우	박찬호	박철원	박춘희	박명아	박하인
박학수	박한희	박현규	박현수	박현주	박형수	박혜경	박혜란	박호근	박호환	박희숙	박효원	박효진
박희문	반미영	반예을	반재용	방경희	방서은	방승빈	방승호	방영준	배대용	배도준	배시영	배시영
배영근	배영희	배유미	배은희	배정호	배지영	배진수	배재영	배현아	배혜선	백기윤	백경미	백경미
백나라	백도라지	백문기	백미순	백 민	백범석	백봉협	백성진	백성현	백승기	백승영	백승희	백인욱
백일하	백종근	백중수	백지예	백진영	범주환	변달석	변수양	변영선	변지영	변재원	변지호	변혜연
부장원	부지환	사해방탕수옥	서강석	서강일	서기호	서동운	서미애	서민경	서민근	서범욱	서상범	서상범
서상원	서석우	서선영	서순아	서승근	서승미	서승욱	서이인	서영국	서영지	서유진	서은석	서은영
서은혜	서재길	서정현	서정희	서지애	서지화	서지화	서지환	서창호	서재원	서해정	서현선	서호성
서희원	세탁전문정하기	석근배	석대건	석영화	선우아정	선정규	설승은	성갑선	성계숙	성근희	성기욱	성기욱
성덕형	성순모	성승현	성영광	성유학	성정모	성정숙	성주경	성준근	성창근	성창익	성하은	성효진
소리미	소민호	소순우	소영현	소윤민	소재욱	소지민	손도희	손명호	손민아	손병욱	손봉기	손승이
송승민	송승현	손아람	손정유	손종모	손학렬	송경근	송다희	송대영	송동현	송명숙	송명훈	송미지
송민정	송민정	송민정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승우
송주연	송주희	송준현	송지우	송지은	송지현	송지현	송찬섭	송창영	송치영	송태협	송하경	송해규
송현정	시너지팩	신기영	신건호	신경숙	신경숙	신고운	신국식	신 권	신대연	신대희	신동석	신동수
신동화	신명근	신미경	신병주	신상아	신석영	신선경	신성식	신성호	신소현	신수경	신승민	신승훈
신아영	신영옥	신영옥	신유림	신윤정	신윤진	신은섭	신은숙	신은진	신정민	신정민	심광택	심나리
신진화	신창용	신해훈	신하은	신한나	신혜성	신혜원	신화경	신화경	신화경	신화경	신화경	신화경
심성우	심재원	심지연	심해용	심형보	심혜섭	심희정	안경환	안기순	안나경	안다연	안대희	안만혁
안명주	안미경	안병국	안병학	안상일	안선주	안성수	안성식	안소연	안순선	안승택	안시야	안시현
안영진	안영춘	안영환	안예하	안오성	안윤교	안윤빈	안은지	안미수	안인걸	안정원	안지혜	안진
안진걸	안진우	안한진	안혜령	안혜림	안혜정	안희광	안희경	안희철	안기을	양동석	양라희	양서현
양선미	양선미	양선미	양소민	양승미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양정하	양준희	양지연	양지원	양지은	양지현	양지현	양찬섭	양창영	양치영	양태협	양하경	양해규
엄재선	엄혜진	에이캐드	여광수	여은국	여지은	연제봉	연제현	연태준	연경영	연경주	연규상	연도원
엄선연	엄주민	엄지원	엄지희	엄찬우	엄찬주	엄 철	엄홍섭	오경민	오기환	오남경	오동환	오미숙
오미현	오병두	오상조	오상현	오석연	오석재	오선화	오성심	오성열	오성택	오세정	오세철	오수정
오승민	오승민	오연희	오영수	오영진	오영자	오영자	오형진	오혜영	오명희	오명희	왕미희	왕진희
왕성진	우동형	우 람	우은주	우정열	우종식	원명진	원민경	원영진	원유호	위아래	위은진	유금녀
유덕기	유동철	유동훈	유록수	유상원	유선평	유성애	유승룡	유승민	유승민	유시화	유연실	유영기
유영일	유영훈	유영덕	유영준	유 욱	유 원	유원규	유원정	유은수	유인선	유재광	유재현	유재철
유재홍	유정민	유정화	유정훈	유지현	유지호	유혜연	유혜정	유화정	유효영	육태순	윤규상	윤기열

함께하는 사람들 기부회원

윤나라	윤덕로	윤미영	윤민화	윤병우	윤병우	윤보미	윤석준	윤석희	윤선옥	윤선주	윤성민	윤성수
윤성운	윤성철	윤세민	윤세중	윤소정	윤승희	윤신승	윤여일	윤영미	윤영순	윤용섭	윤용호	윤원근
윤은정	윤지영	윤재실	윤재윤	윤재훈	윤재훈	윤정숙	윤정연	윤정원	윤정향	윤지숙	윤지현	윤진수
윤진호	윤해림	윤현우	윤혜영	윤홍식	윤홍원	윤홍중	윤효연	은중근	은탁	은현호	이가양	이가연
이가현	이거현	이규	이권열	이권열	이규범	이규용	이규화	이기선	이기연	이기용	이기태	이기화
이길재	이나래	이난영	이다영	이달별	이대근	이덕우	이동성	이동연	이동주	이동준	이동현	이동혁
이동훈	이두진	이명숙	이명신	이명자	이명진	이문미	이문희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자	이미지
이민수	이민영	이민재	이민주	이범주	이범휘	이병권	이병래	이병문	이병민	이병인	이병주	이보람
이보안	이보윤	이보형	이복천	이봉영	이봉원	이봉재	이봉준	이봉현	이산희	이상국	이상률	이상민
이상민	이상봉	이상석	이상석	이상수	이상아	이상연	이상영	이상원	이상필	이상화	이상호	
이상희	이상희	이석영	이석형	이선기	이선민	이선아	이선우	이선희	이선희	이선원	이성은	
이성호	이세리	이세린	이세영	이세영	이세민	이소담	이소아	이소연	이소영	이소영	이소운	이 송
이승준	이수민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수희	이숙현	이숙현	이슬비	이슬수	이슬용	이슬용	이슬우	이슬원	이슬한	이슬한	이슬현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	이시정	이시영	이심가는	이아람	이아브라함	이안소영	이애린	이여름	이연경	
이연수	이연정	이연희	이영근	이영래	이영선	이영옥	이영주	이영희	이예지	이예찬	이예한	
이예화	이옥형	이용구	이용세	이용우	이용욱	이용표	이우승	이우진	이우환	이옥범	이원규	이원재
이원화	이유근	이유영	이유준	이유진	이유철	이유구	이유성	이유정	이유정	이유정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일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은희	이의석	이의진
이인규	이인숙	이 일	이임욱	이정호	이재근	이재명	이재명	이재성	이재승	이재승	이재업	이재욱
이재환	이재형	이재훈	이재국	이정기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진	이정호	이정환	이제철	이종민	이종미	이종수	이종희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창	이주한
이준범	이준상	이준석	이준석	이준일	이준환	이지나	이지숙	이지은	이지행	이지행	이지현	이지혜
이지환	이지환	이진권	이진민	이진선	이진숙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찬호
이찬희	이창국	이창석	이창형	이창호	이채식	이채원	이채원	이채원	이철기	이철주	이총희	이총재
이택건	이탄희	이태정	이태현	이태호	이태훈	이태본	이태본	이태본	이태솔	이태솔	이태원	이태원
이현재	이현주	이혁재	이현미	이현수	이현숙	이현승	이현중	이현주	이현진	이현진	이현진	이현진
이형근	이형미	이형석	이형자	이형주	이형직	이혜리	이혜리	이혜영	이혜은	이혜옥	이혜원	이혜운
이혜정	이혜정	이 호	이호식	이호원	이호인	이호재	이호정	이호중	이호철	이호철	이흥기	이흥식
이화영	이화영	이화정	이화준	이화희	이화희	이효진	이효경	이효정	이훈희	이희경	이희경	이희만
이희성	이희순	이희성	이희성	이희정	이희정	이희찬	임경아	임규숙	임규원	임남규	임대빈	임대우
임대원	임미진	임봉수	임선영	임선영	임선주	임성룡	임성순	임세와	임수경	임수희	임승순	임영미
임예지	임유규	임원범	임익현	임재만	임재성	임정하	임주연	임준은	임지하	임진주	임진홍	임창현
임재민	임철호	임통일	임택민	임현욱	임형남	임혜원	임희동	장 건	장경옥	장교식	장낙원	장달리
장도중	장명경	장 미	장미희	장민주	장민한	장병호	장보람	장석우	장선영	장선희	장성민	장세경
장수민	장수정	장승권	장승희	장여경	장영석	장예림	장우희	장 원	장원택	장유식	장유진	장윤경
장윤식	장윤숙	장윤정	장윤주	장윤호	장윤경	장윤영	장윤주	장재영	장정환	장정영	장지숙	장지숙
장철익	장 품	장해강	장 환	장효욱	장효정	장 훈	장희국	전경태	전명신	전명호	전민성	전민식
전병규	전상배	전상윤	전성관	전성지	전수안	전아람	전영록	전예은	전용범	전우정	전원열	전원진
전은경	전재우	전정현	전정환	전지성	전천서	전창률	전혜진	전화승	전호숙	정가영	정경민	정경애
정계선	정계현	정고은	정광식	정광민	정광현	정규빈	정규원	정낙식	정남순	정다은	정다정	정다훈
정다희	정대일	정도영	정명준	정미화	정민경	정민석	정민영	정병기	정병수	정병수	정성호	정성호
정상훈	정서희	정석왕	정선애	정선호	정성수	정성용	정성윤	정성태	정성호	정성훈	정성훈	정세영
정세진	정소망	정소연	정소연	정소연	정수미	정수정	정순문	정순형	정승혜	정아름	정아선	정연선
정연옥	정연주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유주	정유하	정은령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미영화	정인섭	정인홍	정일연	정일용	정재건	정재욱

정재욱	정재필	정정국	정정숙	정정진	정정화	정정환	정정훈	정재훈	정종호	정준학	정종열	정지연
정지웅	정지하	정지훈	정 진	정 진	정진규	정진숙	정진화	정정교	정창숙	정재영	정 철	정 철
정춘석	정태학	정해승	정행주	정현근	정현백	정현철	정형모	정혜경	정혜련	정혜민	정혜선	정혜연
정해진	정호엽	정호진	정홍조	정화숙	정화인	정환엽	정희경	정희원	정희정	정희진	제욱재	조경주
조광희	조규호	조기연	조남혜	조대연	조덕현	조동선	조동완	조동용	조문성	조문숙	조미연	조미희
조범식	조병규	조석필	조선영	조선영	조성숙	조세현	조수민	조수진	조숙현	조아라	조연민	조연희
조영관	조영신	조영연	조영옥	조영현	조영희	조영기	조영수	조용하	조우람	조우연	조우현	조 우
조원희	조우경	조은진	조은진	조이여울	조익섭	조장천	조재령	조재우	조정은	조정현	조정현	조주영
조준호	조초희	조춘홍	조한결	조한진	조한미	조현복	조현주	조형순	조혜련	조혜영	조혜인	조혜정
조현숙	조혜주	조홍택	조효민	조홍식	주경숙	주기영	주민철	주보경	주선영	주선하	주숙희	주신영
차근숙	차영진	차영진	차지훈	차지호	차지호	차지호	차지호	차지호	차지호	차지호	차지호	차지호
차태욱	차태진	차한성	차 현	차현미	차혜령	채성희	채양희	채운경	채태아	채희정	천경승	천만우
천정훈	최가영	최강욱	최 결	최경숙	최경자	최계영	최광기	최광훈	최규진	최기림	최기선	최길민
최다빈	최달용	최대호	최대훈	최문규	최문근	최문석	최문순	최미영	최미영	최민경	최민량	최민형
최병규	최병선	최병영	최보라	최서연	최서연	최서희	최석균	최선우	최성규	최성보	최성일	최세현
최소연	최승현	최승철	최아람	최아람	최영규	최영희	최용	최용범	최용직	최용희	최용호	
최우영	최우영	최원근	최원석	최 유	최유남	최유리	최유진	최유하	최윤경	최윤석	최윤수	최윤희
최은배	최은숙	최은순	최은영	최은주	최의실	최인선	최재신	최재홍	최정규	최정식	최정아	최정욱
최정우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임	최정환	최종선	최종환	최준근	최준성	최준우	최준혁	최지경
최지선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진영	최진영	최창근	최창민	최창호	최철기	최희재	최현호	
최형식	최형식	최호정	최홍엽	최효영	최효재	최희정	최희정	최준영	최준영	최준영	최준영	최준영
편선정	표승비	하니영	하성우	하승수	하양진	하인숙	하정영	하주희	하준영	하진경	하태승	하희봉
한경수	한국영	한금섭	한기영	한기원	한명덕	한미미	한민용	한민희	한병준	한보경	한상만	한상호
한상희	한성민	한수경	한수석	한승표	한애라	한연규	한영동	한영주	한예솔	한원희	한은희	한이경
한재호	한중섭	한중호	한지수	한지연	한지영	한지형	한진숙	한창건	한창남	한창완	한창훈	한재윤
한철우	한태운	한학수	한화숙	한호성	한호은	함동호	함영선	하나늘	하누리	하세진	하수희	하인희
하오영숙(하영숙)	허 정	허정집	허태정	허태정	허희수	현우영	현지현	현우영	현지현	현우영	홍순희	홍경선
호영가	마스타	홍경화	홍금순	홍대은	홍두의	홍 민	홍봉표	홍성민	홍성수	홍성진	홍수정	홍수희
홍순진	홍승기	홍승미	홍승혜	홍아현	홍영재	홍원희	홍우람	홍유미	홍윤선	홍은기	홍정기	홍정아
홍정훈	홍주희	홍지수	홍지은	홍진영	홍진표	홍조롱	홍혜선	황기혜	황경모	황규만	황규인	황매화
황미정	황보민규	황선주	황서아	황성연	황승옥	황승희	황신애	황연재	황예랑	황용기	황원규	황은경
황의홍	황의홍	황재호	황준현	황지현	황진도	황채주	황채주	황현	황현이	황현일	황현일	황현정

EuniceKyoungheekKim KIM, DYLAN DAE WOO LIMHYUNSOO Patricia Goedde Seo Olivia Seunghee SHIN JAMES SK염창주유수 SUNG CHAN WOO YONG MI KWON 무명 무명_1

(재)바보의나눔 (재)삼심수도회 (재)화우공익재단 (주)공달학원 (주)미래에너지 (주)보문재 (주)비트컴퓨터 (주)사이로직 (주)삼구아이앤씨 (주)센티넬테크놀로지 (주)스페이스2.0 (주)리레테스트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국가인권위원회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법무법인 강녕 법무법인 공준 법무법인 넥서스 법무법인 다은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세연 법무법인 여는 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정도 법무법인 플라리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우송 법무법인LKB & Partners 법무법인인승 법무법인다울 법공공익모 나무 변호사 박숙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봉우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다산인권센터 민변 활동지원사지부 희망을만드는법 평등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사단법인 녹색연합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로럼 사단법인 한결 사단법인비온뒤무지개재단 사랑센재단 사회복지법인 에스피서행복한재단 사회현대은행 사회적협동조합사람마음 서울시립대법전문연법학회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세계한인변호사회금 시민안전시민넷 아름다운재단 여성환경연대 연분홍치마 외국법자문협회 이주민방송 이주외인권연구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식회사 프로핏 진보네트워크 태동정보통신 톨빌리 주식회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UNHCR YLS공익인권법학회 OSPC SHEPPARD M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도처에 가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공감 활동의 지향점은 처벌이 아닌
시정과 보상,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모든 분의 참여를
간곡히 바랍니다.

전수안 이사장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오늘도 뚝뚝뚝
공감의 친구들 고맙습니다.

변연식 이사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상희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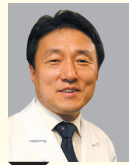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존리 이사



'공감'은 '공'정하고
'감'동적인 사회를 추구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보태어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김유니스 이사



홍진표 이사

공감은 다른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신비한 경험이다.



김영준 이사

공감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고
보다 정의로운 따뜻한 사회로
다가가게 됩니다.
공감을 위하여!



신경숙 이사

든든한 등 공감!!



데이빗 워터스 이사

공감과 함께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길을 내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문영화 이사



백신같은 '공감'이 있어서
바이러스도 걱정 없다!

변영선 감사



나는 믿는다.
진정한 나를 찾아 좋은 삶 쪽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서는 분명, 다른 길이 있다.
한 걸음 다른 길로, 한 걸음 공감에게로.
(박노해 시인의 다른길에서 인용함)

오종석 감사



햇살이 끊긴 그곳,
따뜻한 공감으로
찾아갑니다.

윤재운 이사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분명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말.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림



박예안

공감이 있는 길,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제 발자국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20년 초입.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볼까 합니다.

박영아



염형국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임기화

오늘도 내일도 견고 또 견졌습니다.
희망이 있는 그 곳으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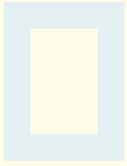


장서연

공감 15주년.
시간의 무게,
그동안 함께 해 온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비어 있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채우지 않음을 성찰하고
두려워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다가가도
완전한 '공감'은 이를 수 없고
아무리 들으려 해도
완전한 '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려 합니다.

황필규



유례없이 다이내믹했던
공감의 2019년, 안녕!

차혜령



2019년.
시작 신호탄과 함께
정신없이 출발했습니다.
여러가지 '첫번째'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소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별강머리 엔)

안주영



빛나는 사람보다
빛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윤지영



늘 같은 길,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옥미





참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 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공감 나눔밥상이 열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상당한 날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실까, 마스크는 챙기셨을까..
꼬리에 꼬리를 문 걱정들을 뒤로하고 기부회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 분 두 분.. 고마운 분들의 발걸음으로 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마음도 훈훈하게 채워집니다.
자타공인 공감의 행사 전문 MC 김수영 변호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시환 후원회장의 환영인사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공감의 활동’은 공감 구성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말은 영역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기부회원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이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 하나 고운 눈으로 보아주신 기부회원님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공감 기부회원입니다”
접수할 때 나눠드린 명찰에 본인을 설명하는 형용사와 이름을 채워넣고
테이블별로 자기소개를 하고, 준비한 제비뽑기로 테이블의 대표를 선발하였습니다.
기부기간이 가장 긴 사람, 기부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 가장 먼 곳에서 온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 오늘 소개를 가장 재미있게 한 사람.
제비뽑기로 뽑은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테이블의 대표가 되어
함께 이야기 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와 기부 혹은 공감과의 인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행여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을 빠뜨리게 될까 손가락 하나하나 집으며
차혜령 사무총장의 감사인사와 전체 셀카를 끝으로
2019년 나눔밥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감보다 더 큰 공감이 있었던 시간.
오고간 이야기들은 공간을 채우고, 전해지는 온기는 공감을 채웠습니다.
2019년도 공감을 생각해 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따뜻한 밥상, 기분 좋은 만남의 자리에서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2

www.kpil.org



1

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9 연간보고서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인
전수안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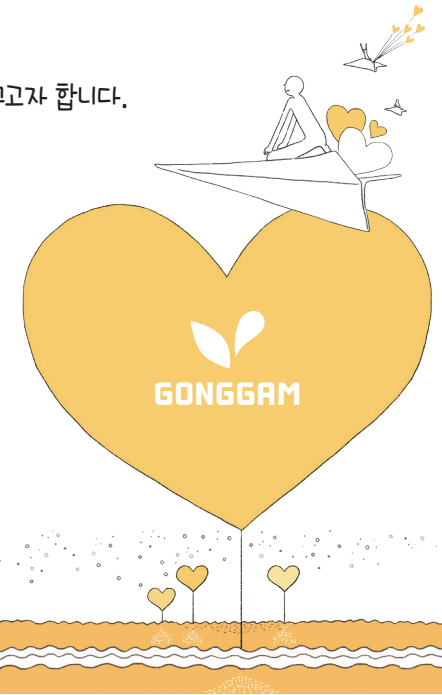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홈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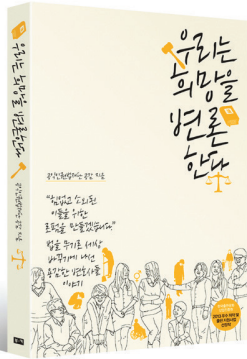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 신청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 가능)
이메일 : gonggam@gmail.com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2013년 12월 9일 발간 / 280쪽 / 14,000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앓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홈페이지 www.kpil.org